

악성 담도 폐색 환자의 담도 스텐트 유지 성적

울지대의 내과 이은규*, 주연호, 김태현, 조윤주, 박영숙, 진단방사선과 조성범

근거적 절제가 불가능한 악성 담도 폐색 환자에서 담도 배액을 위해 내시경적 혹은 경피경간적 담도 스텐트 삽입을 시행한다. 저자들은 지난 5년간 울지병원에서 담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은 39예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플라스틱관	금속관 1개	T-shape 금속관 2개
시행횟수	17	19	3
원발성 담도암	8	11	2
전이성 담도폐색	9	8	1
남녀비(M/F)	0.7:1	0.7:1	2:1
평균연령	69	72	67
스텐트 폐색의 평균 기간	2.6개월(10예)	4.5개월(5예) *	5.4개월(2예) *
스텐트 폐색 없이 사망 까지의 평균 기간	1.9개월(7예)	3.7개월(14예)	1.6개월(1예)

(* p < 0.05 difference compared with plastic stent)

내시경적으로 삽입된 플라스틱관의 유지기간은 금속관의 유지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

1개의 금속관을 삽입한 19예중 내시경적 삽입 9예와 경피경간 삽입 10예간의 유지기간 차이는 없었다.

Bismuth type II 이상의 간문부암 3예에서 경피경간적으로 시행된 T-shape 금속관 2개 삽입술은 PTBD를 하나만 시행하여도 되므로 덜 침습적이었으며 유지기간은 금속관 1개의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악성 폐쇄성 황달 환자에서 막부착성 금속 배액관과 막미부착성 금속 배액관의 치료성적 비교, 합병증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차상우*, 이상호, 천영국, 홍수진, 김영석, 문종호, 조영덕, 이준성, 이문성, 심천섭, 김부성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악성 폐쇄성 황달 환자에 내시경적 배액술을 위한 금속 배액관 삽입은 고식적인 치료법으로 정립이 되어있으며, 금속 배액관내로의 종양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막부착형 배액관이 개발되어 임상에 적용되고 있으나 막미부착형 금속 배액관과 비교하여 배액관 기능유지의 점도나 합병증 발생정도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연자 등은 금속 배액관의 막부착 여부에 따른 치료성적 및 합병증 발생정도를 알아보고자 본원에서 악성 폐쇄성 황달로 막부착형 금속 배액관을 삽입한 51예, 막미부착형 금속 배액관의 삽입은 22예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1) 배액관의 삽입은 전예에서 성공적으로 시술되었다. 2) 배액관의 삽입에 따른 합병증은 경한 체장염이 막부착형 2예, 막미부착형 1예에서 발생하였고, 담낭염은 막부착형 3예, 막미부착형 1예에서 발생되었다. 3) 배액관내로의 종양증식은 막미부착형에서만 4예 관찰되었고, 배액관 선단의 종양 과증식은 막부착형 4예, 막미부착형 2예에서 발생하였다. 금속 배액관의 일탈은 막부착형 1예에서 발생하였다. 3) 배액관의 기능유지 기간은 막부착형에서 막미부착형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악성 폐쇄성 황달 환자에 있어 금속 배액관의 삽입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은 막부착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배액관 기능유지 기간은 막부착형 배액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